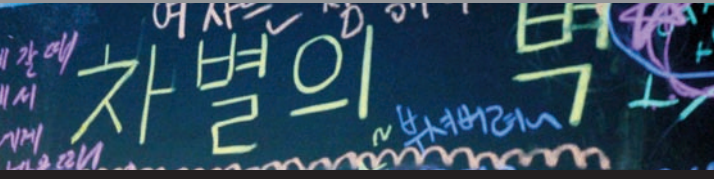


4 >> 구성원 대표 선거 겹치는 ‘콘’ 11월



5 >> 총여존페 논란 속 ‘인식도 조사’ 공개



학사다이러리 – 201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 개설과목확인: 11. 17일
- 수강신청: 12. 11(목)~12. 15(월)
- 등록금 납부기간: 12. 16(화)~18(목)
- 수업기간: 2014. 12. 22(월)~2015. 1. 14(수)
- 수업료: 1학점당 8만 9,000원



공공기숙사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동대문구청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향의 방문하고, 기숙사 건축 인·허가를 촉구했다

기숙사, 결국 ‘행정심판’으로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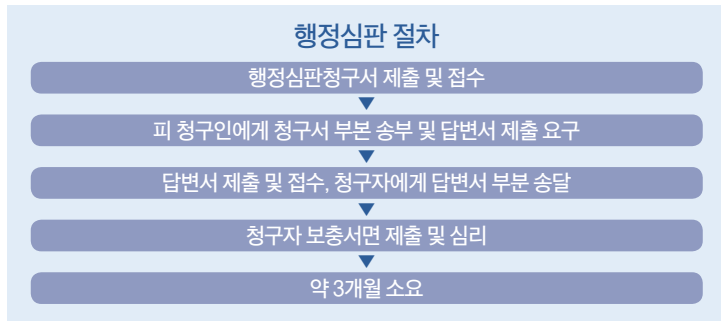
SPACE21 건설사업 현황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서울】공공기숙사 신축이 결국 ‘행정심판’까지 내몰렸다. 행정심판의 경우 평균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착공 예정이던 공공기숙사는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PACE21 건설사업단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공공기숙사 인·허가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달 25일 접수했다. 공공기숙사의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동대문구청이 주민과의 합의를 강조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탓이다.

당초 동대문구청은 공공기숙사 건축허가가 접수된 후 제기된 일부 임대업자의 민원에 대해, 민원조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업자 측이 기숙사 규모 축소를 고집함에



따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달 14일 동대문구청은 ‘최후 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민원조정 협의체를 추진했으나 일정상의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고, 학교에서 고민 끝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다.

SPACE21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지역발전협의회 측과 성실하게 논의하고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도 받지 못했고 논의도 진전된 것이 없다”며 “발전협의회 측이 논의를 진행할 마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기숙사 문제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공이 넘겨졌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다. 건축 인·허가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구청의 주요 반력사유인 ‘민원’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다른 건축물의 행정심판 사례와 같이, 기숙사 인·허가를 승인하라는 ‘이행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행정심판 청구서를 검토하고 있

으며, 곧 이에 대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구청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공공기숙사 문제가 지연되면서, 별도로 건축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던 SPACE21사업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SPACE21사업의 경우 기존에 문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수정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번 달 초 발표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동대문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건축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매우 조심스럽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제캠퍼스 SPACE21사업의 경우, 체육관 건립은 건축인·허가를 받아 입찰이 진행 중이다. 또한 외국어대학교와 공과대학은 이현호(홍익대 실내건축학)교수의 설계안을 바탕으로 한 평면도가 제작중인 상태로 알려져 있다.

Newsmaker

명예 ‘학사’ 학위 받은
이정식 석좌교수



“내 생애 가장 특별한 졸업식”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연신 환한 미소를 짓는 한 학자를 위한 졸업식이 지난달 30일 네오리관에서 열렸다. 이 날의 주인공은 이정식 석좌교수였다. 올해 83세인 이 교수는 우리학교 석좌교수 겸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UCLA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UC Berkeley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된 그는 유려한 문장과 정치사에 대한 균형 있는 시선으로 한국 내부의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많은 저술활동을 통해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은 이 교수는 미국정치학회 최우수 저작상을 받았고, 제1회 위암 학술상과 제8회 경암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런 그가 관례인 명예 ‘박사’ 학위가 아닌 명예 ‘학사’ 학위를 받게 된 배경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중일전쟁 당시 양자강 근방에서 전쟁을 목격한 그는 태평양 전쟁과 6.25전쟁까지 직접 경험한 세대다. 비극적인 시대 상황으로 인해 15세가 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두 명의 남동생과 한 명의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가정이 됐다. 교육받을 기회도 없이 쌀장사를 하던 자신과 딸

리, 대학에 다니는 친구를 보고 박탈감을 느낀 이 교수는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학문에 대한 목표는 은 붓글씨 연습을 위해 잠언을 40번이나 반복해서 적은 일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후 6.25전쟁 중 부산으로 월남한 이 교수는 무작정 근처의 학교를 찾았다.

그가 신홍대에 입학했을 때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만큼, 학사과정의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바로 우리학교의 전신인 신홍대였다. 하지만 그가 신홍대에 입학했을 때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만큼, 학사과정의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끼던 그는 스스로 꾸준히 학업을 진행했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다. 그리고 60여 년 만에 이 교수는 명예로운 졸업식에 서게 됐다. 처음에는 박사학위를 제안했지만, 이 교수는 자신의 학문을 시작했던 신홍대의 학사 학위를 수여받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한다.

▶3면으로 이어짐

조인원 총장 3선, 2018년까지 임기

백승철 기자

조인원 현 총장이 차기 15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경희학원은 지난달 31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재적이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결했다.

이로써 조 총장은 지난 2006년 13



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0년 14대 총장으로 재선됐고 이번으로 세 번째 임기를 맡게 됐다.

과연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휴머니티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㉔

김연경 소설가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한 지방도시, 두 번의 결혼에서 세 아들을 둔 중년의 지주 표도로 카라마조프의 저택. 성년이 되도록 타지에서 자란 아들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시작된다. 장남 드미트리리는 어머니의 유산을 받으려고 온 것인데, 아버지와 각축을 벌이던 중 아버지가 눈독을 들이고 있던 젊은 여성 사업가에게 반하

고 만다. 이반의 귀향은 소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고 있던 형의 약혼녀 때문이다. 부자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도사를 꿈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정치적 차원부터 형이상학적 차원까지 아우른다

는 막내아들 알료샤가 동분서주한다. 이렇게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친부상해의 테마는 정치적 차원(차르를 죽이다: 혁명)과 형이상학적 차원(신을 죽이다: 무신론)을 아우른다. 소설의 사상적 축을 대변하는 이반은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입장에서 출발,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앞에서, ‘조화’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아이들의 희생을 근거로 ‘반역’을 선언한다.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

라 그가 창조한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의 무신론은 「대심문관」에서 낭만적인 환상 문법을 빌려 표현된다. 여기서 대심문관은 ‘그’(=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가 거절한 악마의 세 가지 유혹(‘기적’과 ‘신비’와 ‘권위’)을 가까이 받아들였노라고 고백한다. 인간이란 너무도 나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버거운 자유의 짐을 털어주고 대신 빵(‘기적’, ‘신비’)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경배”할 수 있는 대상(‘권위’)을 제공한 다음 ‘신 없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 온라인 ‘이슈스트림’ 서비스 (media.khu.ac.kr/khunews/issue_stream)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흐름과 맥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학주보는 각 키워드별 관련 기사를 시기순과 호응도순으로 정리해, 독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슈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슈스트림’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특성화사업 칼럼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사업 황철수 단장의
‘시공간 빅 데이터의 이해’ 마지막 연재

>>6면

